

13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10.60	↑ 코스닥	788.89
	(+16.01)		(+0.29)
↓ 금리 (미국 9년)	3.435	↓ 환율 (원·달러)	1301.80
	(-0.268)		(-22.4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급 사라지는 기업들
 조직 혁신 vs 사기 저하
 03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LFP 배터리’ 단점 잡은 K-배터리... 中 아성 흔들다

(리튬·철·인산)

SK온 인터배터리서 시제품 공개
 저온 주행시 주행거리 감소 개선

권용수 LG엔솔 부회장, 中 방문
 난징공장 생산라인 적접 점검
 해외 중심 LFP 라인 구축 추진

국내 배터리업체가 ‘LFP(리튬·철·인산) 배터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간 LFP 배터리는 ‘중국산 배터리’로 여겨왔다. 하지만 판세가 뒤바뀌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LFP 배터리에 대한 ‘단점’을 보완해서다.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수요’에 힘입어 인기도 얻고 있다.

13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국내 업체들은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위주로 배터리 시장을 공략해왔지만 최근에는 LFP 배터리 개발과 공급을 위해 투자 중이다.

대표적으로 SK온은 각종 배터리와 LFP 배터리 시제품을 15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2023’에 참가해 공개할 예정이다. SK온은 파워형 배터리에 강점을 가진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완성차 업체들이 LFP 배터리의 공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져 배터리 셀의 다변화에 나선 것이다.

SK온 측은 “SK온의 LFP 배터리 시제품은 영하 20도 이하 저온 주행시 주행거리가 50~70%로 줄어드는 기존 LFP 제품의 단점을 대폭 개선했다”며 “저온에서도 70~80% 수준의 주행거리

국내 배터리 3사 LFP 배터리 개발 현황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 공장서 ESS용 LFP배터리 생산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2공장에 LFP라인 구축중 (2025년 완공 예정)
SK온
성능 향상 LFP 배터리 시제품 개발, 양산 추진
삼성SDI
LFP 대신 망간 비중 높은 보급형 배터리 개발

/뉴시스 그래픽 자료/각사

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권용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중국 난징공장을 방문해 배터리 생산라인을 직접 점검할 정도로 LFP 배터리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권 부회장의 중국 공장 방문은 2021년 CEO로 취임한 이후 첫 행보다.

LG에너지솔루션의 중국 난징 공장은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공장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전진 기지이기도 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전기차 시장에서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LFP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사업장을 중심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LFP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에 만들어진 제2공장에 신규 LFP 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가성비와 더불어 LFP 배터리 장점으로는 안정성이 꼽힌다. NCM 배터리는 충상 구조지만, LFP 배터리는 크기



한미 연합훈련 돌입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된 13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에서 우리군이 K9 자주포 등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 변화된 안보환경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을 실시해 동맹의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뉴시스

스틸 형태의 육면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안정적이라는 평이다.

하지만 LFP 배터리는 에너지밀도 대비 전력 발생 효율이 낮고 수명이 짧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배터리의 무게가 무겁고 기온이 내려가면 주행속도가 줄어든다는 성능적 단점이 있다. 또한 환경오염 이슈로 ‘재활용 가능한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LFP 배터리는 재활용하기에도 경제성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내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높아 LFP 보다 주행거리가 긴 NCM 배터리에 집중된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 업체 중에서도 이런 LFP 배터리 대신 망간 비율을 대폭 높인 하이망간(코발트 프리) 배터리로 중저가 보급

형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을 가진 업체도 있다. 삼성SDI는 다른 업체들과 달리 LFP 양산 계획이 아직은 없다. 대신 삼원계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에서 가격 부담이 큰 코발트를 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보완이 필요한 LFP 배터리지만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기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인 테슬라·포드·폭스바겐 등이 가성비와 전기차 수요를 고려해 LFP 배터리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EV 볼륨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LFP 배터리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5%, 2021년 16.9%, 2022년 27.2%로 10%포인트(p) 이상 커졌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SVB 파산 충격에도 국내 증시 상승마감

美 정부, 예금전액 보증 의사 밝혀

미국 스타트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충격에 13일 국내 증권시장이 ‘블랙먼데이’급의 공포 속에 장을 시작했으나 외국인 매수세 속에 반등하며 상승 마감했다. 미국 정부가 예금 전액 보증 의사를 밝히며 진화에 나서는 등 ‘확전’의 가능성을 신속히 차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SVB파산 여파가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01(0.67%) 상승한 2410.60에 장을 마쳤다. 장중 1%이상 급락하기도 했으나,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며 상승 전환했다. 거래주체별로는 외국인 186억원, 기관 3075억원씩 순매수했다. 개인은 3275억원 순매도했다.

SVB파산의 직접적 여파가 예상된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9(0.04%) 상승한 788.89에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은 1446억원을 사들였으며, 개인과 기관은 558억원, 600억원을 팔아치웠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은행 규제당국은 이번 사태가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이 맡긴 예금을 보험 보증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보증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제롬 파월 연방준비위원장, 마틴 그린버그 예금보험공사(FDIC) 이사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SVB 예금자들이 13일 자신의 예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박명경 기자 mikyung96@m

불확실성 시대 지속... 장기국채·신종자본증권에 뭉치던

재테크 길을 묻다

은행·증권사 PB 설문조사

5대 시중은행 요구불예금잔액 ↑
 증시 박스권 장세에 금리도 하락
 위험 낮고 수익 극대화 상품 주목



직장인 A씨(35)는 최근 예·적금 만기가 도래한 목돈 5000만원을 인터넷전문은행 수시입출금통장에 맡겼다. 목돈을 찾으면 주식에 투자해 자금을 불러, 내년 아파트 청약에 도전해보려 했지만 시장이 불안하고, 예·적금을 다시 넣으려니 금리가 3%대로 내려와 탐탁치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금리가 오르지 내릴지 가능하기 어려워, 투자처를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당분간 파킹통장에 넣어두고 상황을 지켜보려 한다”고 했다.

부동산은 불안하고, 주식은 무섭고, 예·적금은 아쉬운 시대다. 불확실성의 시대가 이어지며 재테크 시장에도 짙은 안개가 깔렸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지만 고금리·고환율·고물가가 만들어낸 혼란의 소용돌이 앞에서 많은 이들이 멈춰 서 있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609조1543

억원에 달한다. 한달 전과 비교해 20조 5503억원 늘었다. 요구불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과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을 포함한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미국의 통화정책에 따라 주식시장이 휘청이고, 예금금리가 5%에서 3%대까지 떨어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요구불예금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은 13일 주요 은행과 증권사 자산관리 전문가(PB·프라이빗뱅킹)에게 ‘재테크의 길’을 주제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PB들은 부동산 시장의 경우 매수와 매도의 호가 차이가 좁혀지며 최악의 국면은 지났지만, 올해 중 회복하기에는 어

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하반기부터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절대적인 금리수준은 높기 때문에 구매력 있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4면>

주식시장은 등락을 반복하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다 하반기 이후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코스피는 지난해 6월부터 2100~25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선 금리인하와 달러약세라는 두가지 요인이 필요한데, 상당기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미국 기준금리의 추가 상승이 예상돼 환호할 만한 달러약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5@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野, TV수신료 징수 개편에 “대통령실 KBS 목숨줄 쥐려 해”
 ▲ 이재명 “尹 대통령,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해 퀘변 이야기” /사진 뉴시스

▲ 與 최고위원들 “이준석계, 당에 쓴소리 넘어 문제 발언만”
 ▲ 與 “한미연합훈련, 김정은 정권에 알리는 경고장”



▲ 김기현, 안철수와 회동... “총선 승리 힘 합치자” 한목소리 /사진 뉴시스
 ▲ 감사원,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 또 연장